

人文論叢

82권 1호

2025년 2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 역사적 접근으로서의 시흥학: 현대 시흥 사회와 생태환경

현재 행정구역으로 시흥시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인천과 안산에 속한 곳이었다. 과거 '시흥'이라는 명칭은 시흥군으로서 현재의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광명시, 안양시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곳으로, 현재의 시흥시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과천군과 안산군이 시흥군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시흥시 남부가 비로소 시흥군에 포함되었고, 지금의 시흥시 북부 지역은 부천군 소래면이 되었다. 이후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를 거쳐 영등포와 금천 지역은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울에 소속되었으며,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면서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81년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1989년 남아 있던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리되면서 폐지되었다. 1989년에야 비로소 오늘날의 시흥시 구역이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흥시는 근현대 들어 행정구역 개편이 복잡하게 이뤄지면서 지역사회의 변동 폭이 컸다. 염전 조성, 간척과 개간 과정에서 지형과 지리, 생태환경의 변화 양상도 상당했다. 현재도 시흥은 공단 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흥 지역의 정체성 형성은 현재 이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에서의 문제의식에서 이 공동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 정체성 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오늘날 시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 소재를 발굴하여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함으로써 ‘시흥학’의 토대를 쌓고자 하였다. 이 기획에서는 미군정의 소금 정책과 시흥 지역 염전, 시흥 일대의 광산 개발에 주목했고, 시화호 탄생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 지역에서의 환경오염과 개선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박지현의 「1945~1948년 미군정의 소금 수급정책과 군자·소래염전」은 미군정 시기 시흥시 일대의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수행했던 역할과 위상을 평가한다. 1945년 8월 해방 이후 남한 지역의 소금 공급망이 와해하고 소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지속해서 다량의 소금을 생산한 주요 공급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군정과 한국인 염업 종사자가 생산한 자료를 교차검증하여 해방 직후 남한의 소금 생산, 수입, 배급 양상을 분석하고,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1950년대 초중반까지 관영염전 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내 소금 수급 안정화에 이바지했음을 입증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으로 대표되는 관영염전 운영과 소금 배급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그동안 민영염전에 치중되었던 현대 한국염업사 연구의 한계, 전매 품목에 관해서도 소홀히 다뤄진 미군정 생활필수품 정책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윤성민의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광업 원조: ‘시흥흑연광산’ 원조 사업을 중심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광업의 활성화와 현대화 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전후 복구 및 경제개발에 대한 다양한 구상과 의지가 교차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에 기존에 규명되지 않았던 대한(對韓)광업 원조를 조명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와 한국 정부 측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며 1950년대 후반 한국 광업 개발이 촉진한 변화 국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작업은 1950년대 이후 한국의 광업 정책 및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명하는 것이

기도 하다.

고태우의 「어디까지 개발해야 할까?: 시화호 30년, 오염과 개선의 이중주」는 1980년대 후반 시화지구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인간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인공 자연’ 시화호 일대의 생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화호 개발 과정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이 개발은 ‘국토 개조’를 표방한 ‘하이 모더니즘’이 표출된 것이었고, 대규모 간척으로 주민 이주와 전업이 발생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생태 재앙을 유발했다. 시화호의 오염과 개선 과정을 살펴보면서 시론적이지만 시화호 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이 기획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지원사업, “역사와 함께 호흡하는 생태 인문도시 시흥”(사업기간 2022. 7.~2025. 6.)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 번째 학술회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당시 학술회의에서는 이번 호 세 편의 논문 이외에도 더 많은 발표가 있었다. 연구자들의 사정으로 비록 이번 특집에 함께 게재하지는 못했지만, 연구 주제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 시기 시흥 지역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번 호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도 추후 출판되어 지역학으로서 ‘시흥학’의 활성화, 나아가 시흥 지역 정체성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태우

